

---

#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방안

정충식\*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S/W Industry in Busan Metropolitan

Choong-Sik Chung

---

이 논문은 2003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 요 약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성장유망산업으로 항만, 물류산업, S/W, 정보통신산업을 선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의 IT산업 가운데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조사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현황, 인력/매출규모, 애로사항, 지원사항, 경기전망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영인프라 측면은 매우 취약하며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부산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의 특화된 솔루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산권역 내 정보화 수요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가 요망된다.

## ABSTRACT

Currently, Busan Metropolitan City is under the economic depress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strategies for building local IT policies, especially for vitalizing software industry. Firstly, it analyzes the trends and basic status on the Busan software industry. Secondly, case studies by S/W policy initiators are conducted, and followed by empirical studie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from government officials, researchers, and businessmen in Busan metropolitan city. Finally, it provides policy alternatives and strategies for building the local S/W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the role and necessity of S/W industry in 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mproving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reorganizing of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s, and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of policy instruments and organizations.

## 키워드

소프트웨어산업, 해양관련 소프트웨어, 콘텐츠개발, 정보통신 산업정책

## I. 서 론

부산시는 1960년대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거점 지역으로 한국의 공업화를 주도하였으며,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되기 이전 15년간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증진을 견인하여 왔다. 부산에서는 1970년대까지 식품, 섬유, 합판 등의 초기 공업화 전략업종이었던 노동집약적 산업이 급성장을 하였으며, 삼성, LG, 대우, 국제, 동명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부산에서 태동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1980년대 이후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억제되는 성장관리도시로 규제를 받으면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에 실패하여 지속적으로 저부가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지역특화업종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지역 산업이 수출과 내수에서 경쟁을 상실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산시의 산업구조는 국제항만과 상업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일찍부터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광공업과 서비스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제조업이 30% 이상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저부가가치 지역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지연과 고부가 창출이 가능한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의 생산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역 제조업의 역의 이전의 가속화로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급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결과 제조업의 비중은 1985년의 33.6%에서 1990년 30.2%에서 1995년 21.8%, 1999년 18.4%로 감소하여 시내전역에 걸쳐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1].

IT산업은 디지털 정보산업의 핵심컨텐츠 산업으로서 신규 개척분야가 많고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벤처기업을 양산하는 주요한 벤처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벤처거품이 점차 사라지면서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한 IT벤처기업은 상당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IT벤처열풍은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이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업체의 68.8%, 종사자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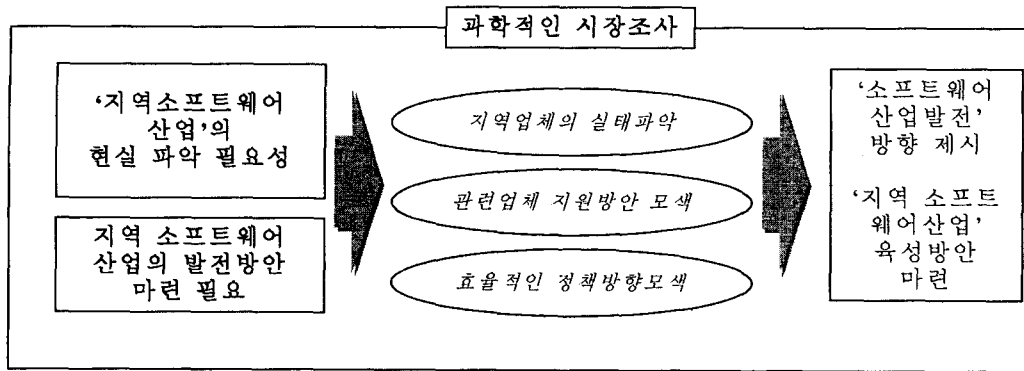
87.2%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다. 부산은 업체수의 7.5%, 종사자의 3.3%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가 IT산업을 향후 부산지역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력산업의 하나로 육성시키려면 지속적인 창업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자체적인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지역내에 구축해야 한다. 부산시가 정보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부가가치인 정보산업을 활용하여 기존의 신발, 철강 등의 노동집약산업 중심인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고, 또한 항만, 관광정보, 수산정보 등의 연관산업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시의 정보산업 육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정보화와 더불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역내 산업구조를 개선시켜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통신산업이 부산지역에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점으로는 초고속통신망의 완성, 부산텔레포트의 구축, 부산정보단지의 조성, 부산정보센터의 건립, 세계4위의 컨테이너 항만 보유[2],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산 정보통신산업의 약점으로는 지역업체의 영세한 규모, 기술능력의 낙후로 인한 서울업체의 시장잠식,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 부족, 고급 정보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 2000년부터 정보화비전으로 Digiport-21을 설정하고 부산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시민중심의 디지털 정보 포탈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지역산업의 유망한 기술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해양기자재산업의 경우 국내 기술경쟁력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해양기자재산업의 경우 타산업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첨단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 주종산업이다. 더 나아가 부산권의 항만, 물류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의 높은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3]. 특히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첨단산업분야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 및 국산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그림 1> 연구의 목적 및 효과  
<Fig. 1> Purpose & Effect of Research

상황에서 부산시는 전략적으로 성장유망산업으로 향만, 물류산업, S/W, 정보통신산업을 선정하였다. 이것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 및 도시발전 비전적 측면에서 싱가포르나 카오슝 등 동남아시아의 경쟁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고성장 유망산업이다[4]. 더 나아가 현재 부산정보단지 육성이라는 부산시 정책방향과 부합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IFF)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의 IT산업 가운데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이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업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시 정보산업진흥원 입주업체 및 협회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1차 List-Up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 대상사업체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

자가 조사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수행 시 각 업체에 본 조사의 성격과 업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팩스, e-mail, 우편발송 및 입주업체의 경우 직접 전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응답대상업체의 전반적인 인력, 매출, 사업계획 등 경영현황에 대해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1차적인 응답자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급 이상의 응답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임원 및 대표이사가 직접 응답한 업체가 30% 가량이었으며 본 조사의 70% 정도의 응답자는 관리자급 이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사업체를 파악한 결과 미확인 업체를 일부 제외한 전체 514개 업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본 조사는 2002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12월 3일 까지 본 실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율은 <표 1>과 같이 25%로 저조하였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1년내에 이사 또는 폐업한 회사가 많아서 설문지가 반송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또한 부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현황의 자료가 최신 자료를 포괄하고

<표 1> 설문 회수율 현황  
<Table. 1> Return Ratio of Questionnaires

대상업체 수	발송	미확인	유효 Sample	회수율
514개 업체	514개	약 110여개	130개	25%
비 고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산지부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자료를 참조하여 총 5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음. * 부분적으로 폐업, 소재불명등으로 확인이 어려웠으나 본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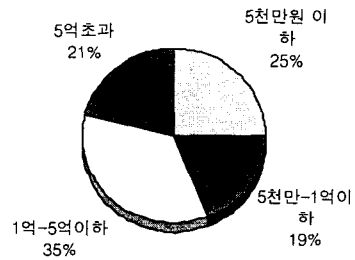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현황, 인력/매출규모, 애로사항, 지원사항, 경기전망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 III. 분석 결과

#### 1.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일반 현황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체들의 기업형태를 조사한 결과 81%의 업체가 '일반법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인기업' 형태의 사업체는 19%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를 주력사업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전 사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일반법인' 형태의 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S/W 개발 대행의 분야에서는 응답업체 모두가 일반법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본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5억 초과와 1억 이하의 집단이 21%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5천만원 이하와 5천만원-1억 이하 집단이 각각 25%와 1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자본금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부산시 소프트웨어 사업체들의 경우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응답업체의 44%가 1억원 미만의 소자본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체의 영세성은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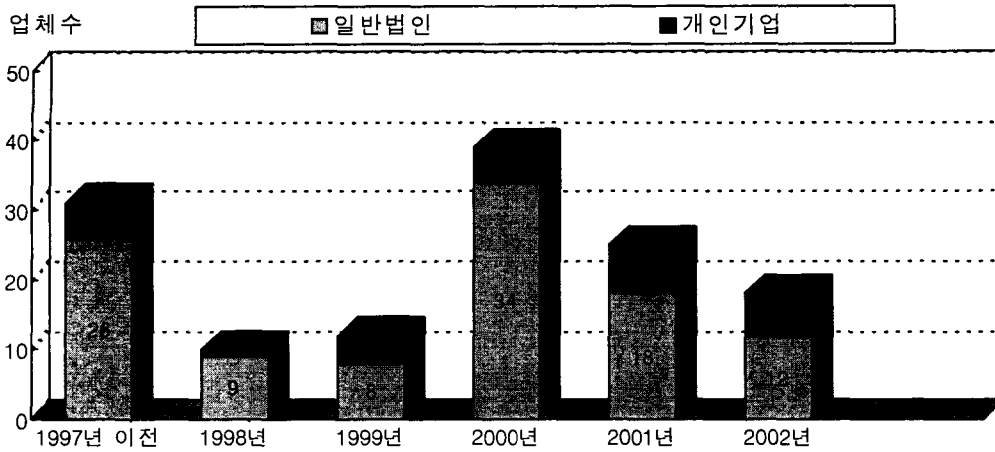


<그림 2> 자본금 규모 분포 (N=116)  
<Fig. 2> Amount of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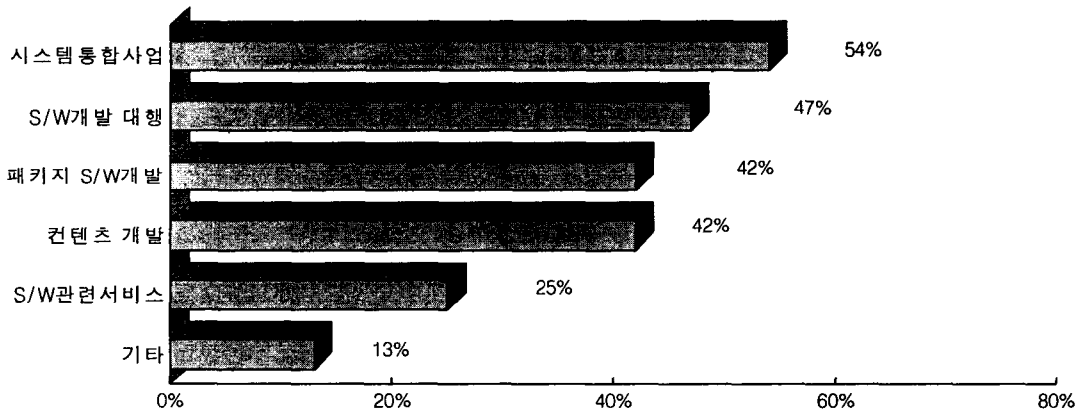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그림 3>과 같이 1996년을 기점으로 매년 창업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 가장 활발한 창업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2001년에 들어서는 벤처경기의 침체로 인해 창업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02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2001년보다도 적은 창업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역 소프트웨어업체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사업분야별로는 <그림 4>와 같이 시스템통합사업을 필두로 소프트웨어 개발 대행 및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 콘텐츠 개발 분야의 4개 분야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체들의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한 업체 당 평균 15.8명을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분야별로는 소프트웨어



<그림 3> 년도별 창업업체 추이 (N=123)  
 <Fig. 3> Trend of Establishmen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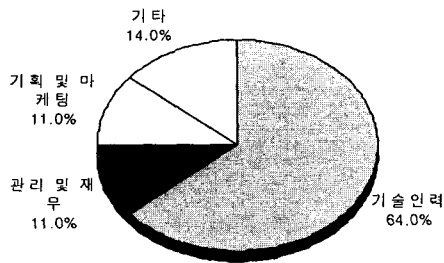


<그림 4> 전체 사업분야 (N=129) - 중복응답  
 <Fig. 4> Business Industry Area

업체의 특성상 개발업무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64%에 달하는 인원이 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관리/재무인력 과 기획/마케팅인력이 11%정도의 인력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주력 사업분야 별로는 시스템 통합사업, 패키지 S/W개발사업, S/W관련서비스에서 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사업 분야에서 인력규

모가 큰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사업, 소프트웨어개발 대행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기술인력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시스템 통합사업 업체의 24%와 컨텐츠 개발 업체의 21%가 특급 및 고급 레벨의 기술인력 비중을 보이고 있어 타 사업분야보다 고급 기술인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분야별 인력현황 (총 인원수=1,980)  
 <Fig. 5> Human Resource Status

**2.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재무 및 사업 계획 현황**

본 조사에 참여한 71개 업체의 2001년에서 2003년까지 3개년 매출현황을 토대로 부산지역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체 627개의 매출규모를 추정된 결과, 2002년 총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15% 성장한 336,420백만원으로 추정되며, 2003년에도 27%의 고성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429,740백만원 규모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된 71개 업체의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의 3개년의 매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2년 총매출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72% 성장한 193,670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03년에는 성장폭이 더욱 확대되어 110% 성장한 406,707백만원 크기로 매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2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업체가 28%를 나타내고 있으며, 1-5억원 이하의 업체도 29%나 되었다. 따라서 전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5억원 이하의 비교적 매출액 규모가 적은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는 39개업체로 응답업체의 30%였다. 2001년의 경우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큰 규모였으며, 2002년의 경우 부산시 및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중앙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산소재 업체의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수주능력이나 사업영역이 보다 확대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소프트웨어업체 중 63%이상

이 현재의 사업영역을 추가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부산지역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사업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6],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자체에 대해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사업확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특히 국내 IT산업의 침체로 IT업체들간의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자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53%가량이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국내시장의 침체와 협소한 시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그 가운데서도 아시아권 국가(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이 긴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7][8]. 특히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시장의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 넘는 50%의 업체들이 자금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분야로 지적하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지원 26%, 기술개발지원 19%, 전문인력양성 19%, 경영 및 교육지원 7%순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우선 현재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영인프라 측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9].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체들의 기초적인 경영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집단이 전체의 52%를 상회하고 있고 또한 직원규모별로는 10명 이하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 소프트웨어산업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상위 20%업체가 부산지역 전체 소프트웨어산업 매출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일부 우량업체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체들의 인원구성 현황은 기술인력이 전체의 약 70%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확충 인원 중 69%를 기술인력분야에 충원할 것으로 나타나 기술인력에 대한 질적, 양적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력수급에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는 기술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자금부족으로 인한 수급/유지 곤란이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장다각화의 일환으로 아시아권 시장 개척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업체에서 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부산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난 애로사항들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부산시의 산업구조는 국제항만과 상업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일찍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나타내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점산업들이 목재, 합판, 신발 등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에서 관광산업, 영화산업 등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첨단 기술집약적인 생산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부가가치 지역제조업의 역외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개책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 유망산업분야이면서 디지털 영상산업과 결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10].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에 대하여 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화된 솔루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 부산은 항만 도시의 특징을 살려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해운/항만 물류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해상통신망 관리시스템의 운영 경험 및 항만 컨테이너 물류와의 연계된 소프트웨어를 특화시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여야 한다[11].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항만/해운물류시스템 등의 솔루션으로 지리,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일본 및 중국시장의 공략에 우선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산업, 게임 및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의 특화된 솔루션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부산권역 내 정보화 수요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가 요망된다. 지역시장의 협소를 해결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부산지역의 투자 주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산권역 내 시장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만 한다. 즉, 우선은 정부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수요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능동적인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대부분의 화두인 자금의 부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관계로 우선은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를 하여 업체에 홍보하고 자금지원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시 또는 민간기업(창투자, 엔젤투자)주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우량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기술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26개 대학에서 매년 1만 1천명의 기초기술인력에 대한 공급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나 수요자인 기업체가 원하는 기술수준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업계에서 바라는 고급기술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산학의 공동노력으로 기초기술인력의 현장체험 기회 확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실시,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센터 구축 및 부산지역 내 기술인력에 대한 인재풀의 DB화 등이 있을 수 있다[12]. 현재 부산지역의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는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업체편람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IT 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BD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문기술 양성 시스템

에 필요한 재원은 부산시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IT산업 총괄지원기관 전문성 강화 및 관련지원기관 설립이 요망된다. 부산지역은 현재까지 정보화 조직이나 기존의 지역산업 조직에서 IT산업 및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부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관련 부처별로 분산하여 정책수행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부문이 증대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T산업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기관은 부산이 해양수도임을 감안하여 해운/항만 물류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3권 제1호, 2002. 6.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데이터베이스백서」, 2002. 2.

### 저자소개



**정충식(Choong-Sik Chung)**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 관심분야: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시스템

### 참고문헌

- [1] 과학기술부, 「부산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 2001. 6.
- [2] 국제신문, “부산항 세계4위 컨테이너 항구로 부상”, 2000. 1. 24.
- [3] 정충식·명승환, “부산시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지역사회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00. 6.
- [4] Neo, King, & Applegate, "Singapore TradeNet: Beyond TradeNet to the Intellegent Island," Harvard Business School, 1993.
-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 동향」, 2002. 9.
- [6] IDC, "Worldwide Software Market Forecast 2001-2006", 2002. 3.
-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PORT-MIS 운영분석」, 1997.
- [8] 박남규, 최형림, “항만관련업체의 EDI 활용현황과 개선 방안”, 「정보시스템연구」, 7(2),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8.
- [9]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2002 부산지역 소프트웨어업체 편람」, 2002. 3.
-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1세기 초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틀 모색」, 2000. 4.
- [11] 신현식·박연식·오문희, “해상통신망 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지」,